

석유부족으로 해체가속화된 소련

關岡正弘

〈日本 東京국제대학 교수〉

20세기의 정치경제는 석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소련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에 소련의 석유생산 정체는 경직적인 공산주의경제를 붕괴시키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日本 東京國際大學 關岡正弘교수의 최근 신문기고를 옮겨본다. 〈편집자註〉

공산권구축은 석유가 지탱

최근 소련에서 일어났던 쿠데타가 다행히도 실패로 끝난 것은 동서 양진영 대결의 부활이라는 악몽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소련자신이 앞으로 직면해야 할 난제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많다.

냉정히 따져보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해왔던 것은 자기가 댔던 배를 파괴한다는 기묘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아 페레스트로이카(개혁)도 그렇고 글라스노스트(정보공개)도 그렇지만, 1985년 공산당서기장에 취임한 그가 취해온 행동은 자신의 당을 해체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역할이었다. 비유하자면 트로이의 왕이 자신의 성안에 자신들을 멸망시킬 木馬를 스스로 들여놓은 셈이었다.

공산주의 특히 레닌이 규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이, 사실은 출신성분이야 어떻든 일부 특권 계급이 전례없는 독재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창조력을 억압하는 정치였음을 생각할 때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업적은 문구표현 없이 평가될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저러한 원래의 동기가 공산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제대로 파악한데서 나온 것인지는 의문이 간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해두지 않으면 소

련의 장래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 소련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은 석유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깊이 볼 때 당초 20세기에 있어서 공산주의라는(인간본성에 반역하는) 이데올로기가 왜 저토록 계속될 수 있었나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다음에 제시한 도표는 1960년대 후반부터의 소련 석유생산·소비의 추이다.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은 두가지로서, 첫째 1980년경까지 순조롭게 증대해왔던 생산량과 소비량이 80년대에 들어 정체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과 소비의 차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련은 생산의 정체상태 이상으로 석유소비를 억제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소련은 제2차대전 후, 19세기부터 생산해오던 바쿠油田 이외에 1950년대와 60년대에 「제2의 바쿠유전」이라 불린 불가·우랄油田 그리고 70년대에는 「제3의 바쿠」라 불린 서시베리아油田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소련만이, 英國·美國이 독점한 서방측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권이었으며, 그러한 힘이 동서양진영 대결구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물질적 기

반이었다. 더욱이 소련은 그런 입장을 이용하여 東 유럽제국을 비롯해 쿠바와 北韓 등에 달러로 사지 않아도 되는 석유를 공급해줌으로써 이른바 공산권이 라 불리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연구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경제가 1960년대에 첨단 산업면에서 결정적으로 낙 후되었다. 또한 70년대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때문에 곡물의 공급을 서방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방측으로부터 첨단 제품과 곡물을 수입하기 위한 달러貨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때문에 소련은 70년대에 겨우 개발한 西 시베리아油田을 혹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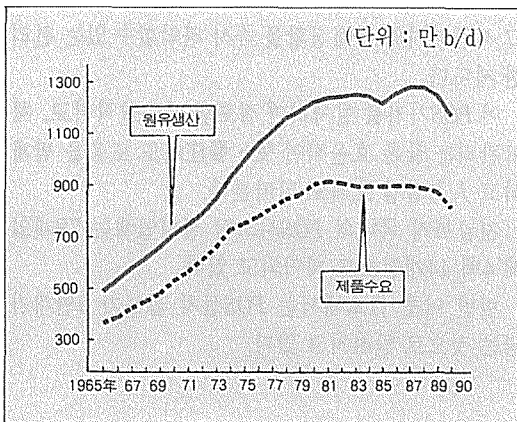
예를 들면 西시베리아 최대인 사모트롤 유전등은 서방석유산업의 상식과는 반대로 초기부터 水攻法을 채택한 것이다. 水攻法은 급속한 증산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전의 수명에는 악영향이 온다. 서방측에서는 자연적으로 압력이 낮아진 다음에 하는 수 없이 채택하는 것이 바로 코스트가 높은 水攻法인 것이다.

발견에 실패한 「제4의 바쿠油田」

소련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일은 제4의 바쿠油田이 있다고 믿었던 東시베리아에서 석유발견에 실패한 사실이다. 東시베리아 지표의 대부분은 6억 년이상전의 지층이 직접 노출되어 있으므로 석유부존가능성이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여기서, 고르바초프가 서기장 취임직후인 1985년

소련의 원유생산과 석유제품 수요



3월 스스로 西시베리아油田 현장에 날아갔던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례적인 시찰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석유산업성의 수뇌부를 모두 경질하였다. 그 직후 1983년이래 감소를 계속하던 소련 석유생산량은 일시적으로 조금 향상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피크에 달하고 그후 가속도적으로 저하하였다. (도표참조)

다음으로, 1980년이래 소련의 석유소비가 최근까지 별 변화없는 수준임을 주목해야 한다.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낮은 추세로 소비가 억제된 것은 서방측에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는 가격메커니즘이 기능하지 못한다. 석유제품 가격도 60년대에 결정된 채 그대로였다. 그러한 경제구조에서 공급이 감소되면 정치권력이 강제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석유의 가장 큰 수요부문은 교통·수송이다. 적어도 1980년 까지는 소련석유소비가 순조롭게 증대되었다. 이는 체질적으로 소련경제가 자체의 수송부문 증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석유소비를 강제로 억제했기 때문에 소련의 수송분야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수송부문 한가지만 문제되더라도 광대한 영토에 산재해있는 무수한 수요포인트에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지 알수가 없다. 그래서 가격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소련이 필사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가격메커니즘은 약육강식의 룰이다. 그런데 눈앞의 정치적 자유를 구하고 있는 소련사람들로서 이 가혹한 시장경제법칙을 이해할 여유가 있을까?

여하튼 최대의 곤란한 점은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원인 자체 즉 소련 석유생산성의 낙후 내지 저하가 최근까지 가속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1년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한 1,000만 b/d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소련석유 공급난에 東유럽 타격받아

소련 석유생산의 감퇴로 큰 피해를 입는 곳은 東유럽제국을 비롯한 舊공산권제국이다. 수년전까지 美달러貨를 필요로 않는 석유를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하다가 돌연 공급중단하는 바람에 경제활동과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쏟아졌다.

그들에게는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를 사올만한 달러貨 보유분이 없다. 그래서 괴로운 대안을 마련 중인데, 그 하나가 소련의 석유생산지역공화국과 물물거래로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어려움은 소련국내의 석유생산이 없는 공화국들과 심한 경합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석유산업의 진짜문제는 「제4의 바쿠油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원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설비 노후화 및 기술낙후라는 문제 뿐만은 아니다. 물론 수십년 차이로 진보된 서방측 탐사기술을 가져온다면 소련쪽 바렌츠海, 카라海에서 「제4의 바쿠」라는 별명에 어울릴만한 큰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발견된다 해도 실제 생산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즉 공산주의의 해체와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87년임에 주목할만 하다. 아마도 고 大統領은 그당시 벌써 문제의 본질(석유부족)을 알아차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취임직후 주요유전을 시찰한 이후, 일시적으로 석유생산량이 증대되었던 일은 우물(油井)을 난잡하게 마구 굴착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태악화에 박차를 가한 셈이었다.

석유사정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소련으로서로는 도저히 자유세계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연유로 소련은 우선 東유럽제국을 서방측에 따라 흐르도록 하고 발트3국을 서방에 인도한 것이다. 다음에는 남쪽의 이슬람문화권 공화국이 떨어져나 가도록 또는 떼어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석유가 계속 생산감소되는 한, 소련은 더욱 더 어려운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

〈日本經濟新聞〉

용어해설

POS 시스템

무슨 상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파악할수 있도록 상품이 팔리는 時點에서 판매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POS(Point of Sale) 시스템은 보통 자동판독장치인 스캐너와 포스터미널, 스토어컨트롤러의 3가지 기기로 구성된다.

몇천에서 몇십만 가지에 이르는 상품을 파는 여러개의 계열점포를 가진 대형유통업체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하루영업이 끝나면 품목별 판매 실적을 금방 알수 있게 되고 영업중이라도 언제든지

그 시점까지의 판매상황을 즉시 파악할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이 POS기기를 설치하면 점포별 매출실적비교, 재고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受·發注에도 도움을 받게 되고 人力절감 효과도 뒤따른다.

지금까지 국내의 POS시스템 설치업체는 79개업체 4백 44개점포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이웃 日本에서는 POS설치 점포가 5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